

[보도자료] 씨피엔터테인먼트 강남 도쿄 접수! '만달로리안과 그로구' 현지 시사회사 '국경 초월' 미담 화제! 팬과의 약속 끝까지 지켰다!

2026. 6. 5.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남미' 관련 이미지 (사진제공:화면 캡처)

만능 엔터테이너 강남이 일본 도쿄에서 촬영한 여행 콘텐츠를 통해 유쾌한 예능감은 물론, 국경을 초월한 따뜻한 인간미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강남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동네친구 강남미'를 통해 아내 이상화의 조카 하늘과 함께한 3일간의 도쿄 여행기를 공개했다. 시부야 가루샵에서 파격적인 가루 메이크업에 도전하고, 현지 맛집 투어와 스티커 사진 촬영 등 트렌디한 콘텐츠로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조카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 세심하게 이벤트를 챙기는 '촌데레 삼촌'의 다정한 면모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강남의 글로벌한 활약과 따뜻한 인성이 돋보이는 미담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디즈니의 공식 초청을 받은 강남은 <만달로리안> 시리즈의 신작 영화이자 현재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인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의 현지 레드카펫 및 시

사회에 참석했다. 강남은 직접 치명적인 귀여움을 자아내는 ‘그로구’ 분장까지 감행하는 열정을 불태우며, 세계적인 거장 존 파브로 감독과 할리우드 톱배우 페드로 파스칼을 만나 소탈하고 친근하게 영어 인터뷰를 이끌어냈다.

강남의 따뜻한 인성이 돋보이는 훈훈한 미담도 공개됐다. 강남은 이날 행사장에서 <스타워즈> 캐릭터 ‘츄바카’ 분장을 한 채 감독과 배우의 사인을 기다리다 실패한 한 현지 팬을 발견했다.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던 강남은 팬에게 먼저 다가가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기회가 되면 대신 사인을 받아주겠다”라며 약속에 건넸다.

이후 강남은 존 파브로 감독과 페드로 파스칼을 인터뷰하는 짧은 시간에도 츄바카 팬의 사연을 전하며 사인을 받아냈다. 이어 팬 가족을 직접 찾아가 사인복을 전달하며 끝까지 약속을 지켰다.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은 팬 가족은 큰 감동을 받았고, 강남의 진심 어린 행동은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처럼 강남은 다정한 삼촌의 매력뿐만 아니라 팬과의 약속까지 지키는 남다른 친화력과 따뜻한 인성까지 보여주며 팬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를 각인시켰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유튜브와 방송계를 종횡무진 누비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강남은 최근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OST Part 1 ‘전설의 시작’ 가창자로도 활약하며 실력파 보컬리스트로서의 존재감까지 입증, 진정한 ‘올라운더 아티스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